

몇 해 전까지 박노완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림을 주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우리 집에도 그의 그림이 두 점 있다. 하나는 중화요리 식당의 전단 위에 아크릴로 짜장면을 그린 <그림의 역할>이다. 작업실에서 식사를 시키고 받은 전단에 그날 먹은 음식을 그리면 재밌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장난처럼 그린 그림일 거다. 낙서 같은 작품에 붙은 '그림의 역할'이라는 거창한 제목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목과 대비되는 초라한 지지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일 테다. 또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 한 종이에 수채화로 노래방 기계와 연결된 티브이 화면을 그린 <퍼펙트 스코어>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노랫말 아래의 바 형태의 음정 노트가 모두 적색이다. 가창자가 뭔가에 잔뜩 취해 엉망진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곧 그 노랫말을 이유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들에 비치는 자조를 걷어내면 박노완의 그림에는 무엇이 남을까.

사실 학부를 졸업하기 전까지 박노완은 뚜렷한 형상을 지닌 대상을 꽤 사실적으로 그렸다. '잘 그리는' 것에 천착한 나머지 아주 작은 부분을 그리다가 물감을 덮고 다시 그리는 것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졸업 이후 사실적인 풍경에 다양한 붓질을 시도하며 유화를 다루던 작가는, 2015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풍경을 작은 종이에 수채화로 옮겨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다는 핑계로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리던 이 시기의 작업은 대부분 거친 필치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표현 기법 탐구의 결과인지, 자기소개서를 양산하는 취업 준비생과 같은 불안감의 반영인지 구분해 낼 자신이 내게는 없다. 몇 해를 거치며 박노완은 선택한 이미지에 따라 재빠르게 붓질을 바꿀 수 있는 기교를 얻었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 작가는 스타일보다 먼저, 그림의 소재를 발견했다. 그려둔 그림들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작가와의 공통점을 찾았다. 어딘가 모자라고 어설피 보이는 대상을 그려오고 있었다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첫 개인전 《싱거운 제스처들》에서 발표한 그림들은 자신을 반영한 대상을 다루고 있었다. 가속하는 세계의 주변에서 나뉘는 존재. 박노완이 그들을 찾아다녔는지 그들이 작가에게 찾아왔는지 가려내는 건 의미 없다. 직접 대면한 대상들의 이미지를 채집해 그림으로 옮겼다는 점을 되짚어보면, 그가 어떤 거리에서 무엇을 보고 다녔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그와 그들은 같은 시공의 존재였다. 세계와 불화하는 대상의 위상을 드러내듯, 그림들은 대상 고유의 형태와 어긋나는 붓질로 덧그려져 하나같이 희뿌연 화면으로 수렴했다.

한편, 이는 작가의 작업에 생긴 두 가지 변화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작은 종이에 하던 수채 실험을 캔버스로 옮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에서 음영을 최소화 한 것이다.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지지체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한 판단의 결과일 수 있으나, 유지가 어려운 수채화를 고수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작가'로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부였을지도 모르겠다. 반면 음영을 포기하는 것은 훨씬 복잡한 맥락을 만든다. 음영의 부재는 실재적 대상이 묘사되는 것을 교란한다.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변명이었던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든, 이는 명백한 과거와의 결별이다.

빛을 소거한 화면은 그가 인식하는 세계의 풍경에 꼭 들어맞는다. 거기에 더해진 대상의 존재를 무시하는 신경질적인 붓 터치는 작가가 자신과 세계를 동기화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 박노완은 대상을 애써 우스꽝스럽게 보고 짐짓 싱거운

제스처를 취했다. 그 때문에 그림이 자신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회피성 농담이 통했다는 사실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불만족이 화면에 표현될 수 있다면, 만족할 때까지 그것을 다듬는 일 또한 화가의 일일 것이다. 덧그리고, 문지르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표면을 변화시키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당장의 과제다.

'사람 얼룩'이라는 조어는 다소 어색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얼룩이라는 뜻으로도, 사람에 의한 얼룩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작가 노트에서 그는 좋은 작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작업이 어떤 형태로든 인간적인 면을 가지길 바란다고 한다. 전시 제목만큼이나 모호한 말이다. "인간적으로"나 "사람이다 보니" 등의 어구가 뒤따르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 외의 다른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 마나 한 말로 들릴뿐더러 공개적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는 그러한 무의미를 그리는 행위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화가의 일에 포개어 이해하는 게 아닐까.

《사람 얼룩》은 어쩌면 오해에서 출발하는 전시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등신대 조형물이 주는 존재감이 일련의 캔버스 작업을 시작하게 했다. 인간 형상을 한 조형물부터 분명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상에서까지, 박노완은 어슴푸레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파헤친다. 누군가는 이 전시를 통해 그가 '사람'에서 '얼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가 어디를 향하는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그렇게 선형적이고 명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시작해 충분히 얼룩이 된 그림을 마주할 때조차 거기서 다시 사람의 모습을 찾으려는 게 그의 현재와 가까울 것이다.

손주영